1955.11

10월의 명절날

주 태 순

동쪽 하늘을 붉게 물 들이며
10월의 명절 날
아침 해 솟아 오른다.

레닌과 쓰딸린의 가르침 따라
붉은 기'발 날리며 처음으로
로씨야 인민들이 새 세상 열어
놓은 날

해마다 해마다 돌아 오는
이 뜻 깊은 명절 날에
영웅 나라의 꽃봉오리들아
소년단기 힘차게 날리자.

아침 해'발은 활짝 펴진다.
아이들아!
명절 맞이 대 모임 가지며
꽃피여나는 새날을 노래 부르자.

이 아침
저기 조국의 남쪽 땅
길'가에서 잠을 깨는
헐벗은 어린이들의 가슴마다에
이 노래 울리여 가도록.

처음에는 로씨야 한 나라에서
승리한 10월의 명절날
그러나 그러나
오늘은 벌써 한 나라가 아니단다
수 많은 인민의 나라
조선과 중국에서도
승리의 노래 울려 펴진다.

모쓰크바 크레믈리 별'빛
밝게 비쳐 오는 이 땅
영웅 나라의 꽃봉오리들아
이 아침 소년단기 힘차게 날리며
10월의 노래 높이 부르자.
온세계 어린 벗들과 함께
씩씩하고 우렁차게.

아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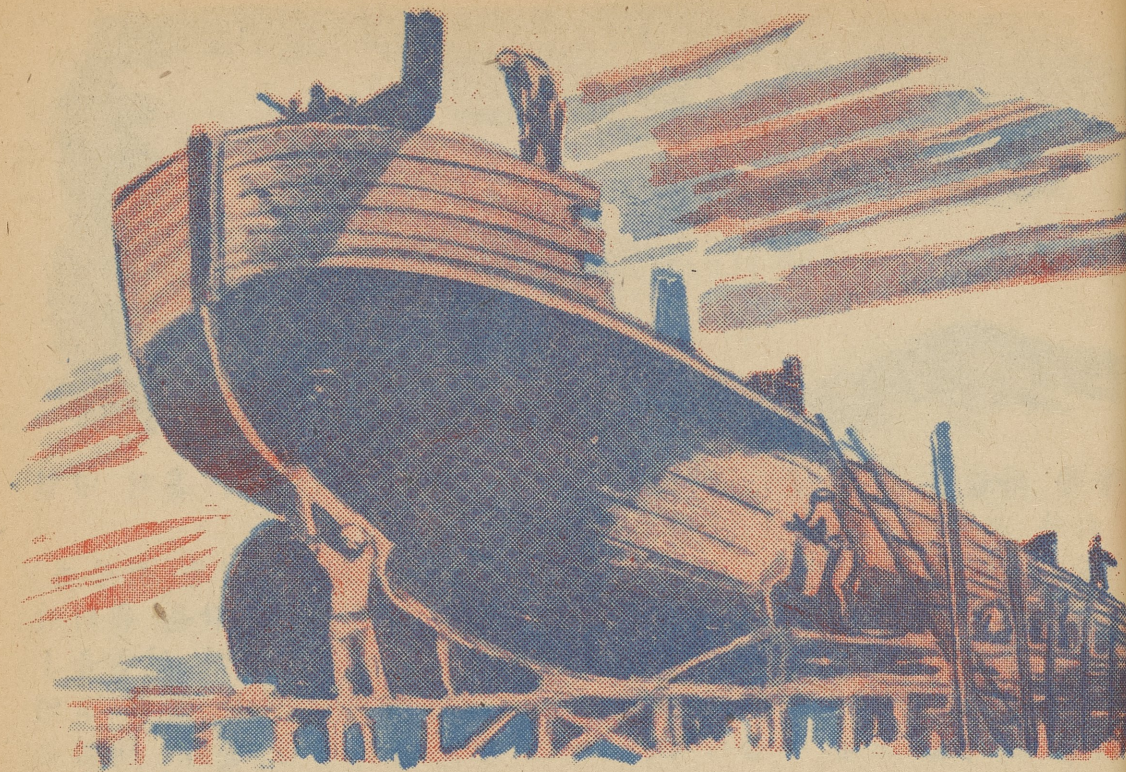
동쪽 하늘을 붉게 물 들이며 또 하루 조국의 아름다운 아침은 밝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서 꿈 나라에서 깨여 나세요. 아침해'님과 인사를 하고 영웅의 나라 아름다운 조국을 노래 부릅시다.

× ×

밤새 이글이글 철광을 녹여 내던 용광로에서는 이 아침 불꽃을 날리며 쇠'물이 흘러 내립니다.

자 보십시요. 탑평봉(쇠장대)을 손에 틀어 잡고 땀을 흘리며 기쁨에 찬 로동자들의 얼굴을!

크레잉이 불가마를 물어 오면 또 다시 폭포처럼 흘러 내리는 저 쇠'물을!

저 쇠'물들이 이제 제강소와 기계 제작소로 가면 레루도 되고 기계도 되고 농기구도 되고 조선소에 가면 배도 만들어 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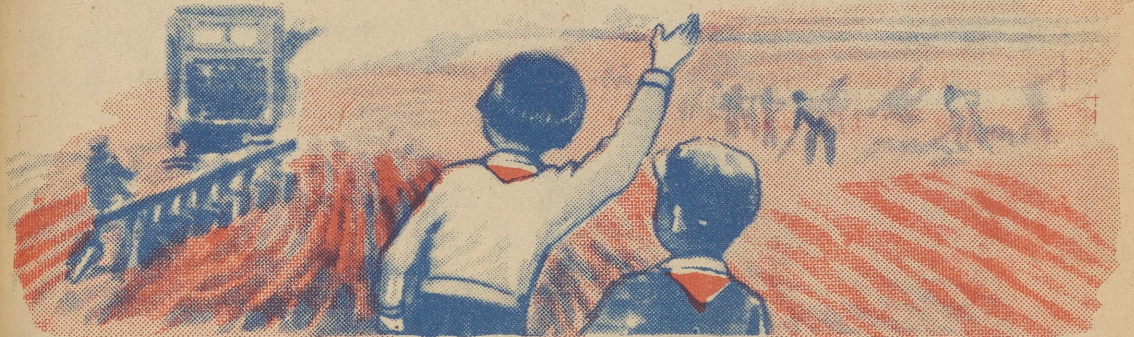
× ×

넓은 벌판으로는 기차가 줄달음칩니다.

어제 밤엔 아마 높은 령을 넘어 왔을테지요. 언제 보나 줄곧 달리고 있는 저 기차, 칸칸마다 듬뿍 짐을 실었지요. 그 속에는 철, 석탄, 비료, 쎄멘트, 목재, 그리고 쌀도 들어 있고 쏘련과 그리고 형제 나라들에서 보내주는 원조 물자도 들어 있답니다.

나라 일을 보러 먼 길을 떠나는 손님들도, 일어서는 민주 수도 평양으로 구경 가는 마을의 할아버지들도 태우고 칙칙 폭폭 아침을 노래하며 기차는 줄달음칩니다.

임경소 뜨락또르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눈'길을 내'가로 돌리세요. 거기서는 이 아침 제방 쌓기가 한창입니다. 오는 해에는 집집마다 더 행복한 살림을 꽃피우기 위하여 ……

협동 조합 탈곡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에 마을은 잠을 깨였습니다.

새들도 즐겁게 풍년 든 마을의 아침을 노래합니다.

들에 나서 귀를 기울이면 저 멀리 어데서인지 으르릉거리는 엔징 소리가 들려 오지요. 벌써

× ×

산림이 빽빽히 들어 선 벌목장에도 아침 해'살은 비쳐 들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대기를 헤치며 톱 소리 도끼 소리 쩡쩡 울려 퍼지면 이윽고 아름드리 나무가 너머지는 소리!

새들도 놀라 깃을 치며 날아나고 짐승들도 놀라 뛰여 갑니다.

이제 이 나무들을 거리와 마을로 실어 나르면 우리들의 학교와 새 집들은 더 많이 일어서지요.

× ×

저 멀리 끝 없이 푸른 바다를 바라보십시요. 해 뜨는 바다 우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낚구고 있지요.

영치기 영치기 어부들의 흥겨운 노래 소리도 들려 옵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 떼들이 펄 뛰기 시작하면 어부들은 성을 올립니다.

집집들에 더 많은 생선을 낼 수 있게 되였으니까요.

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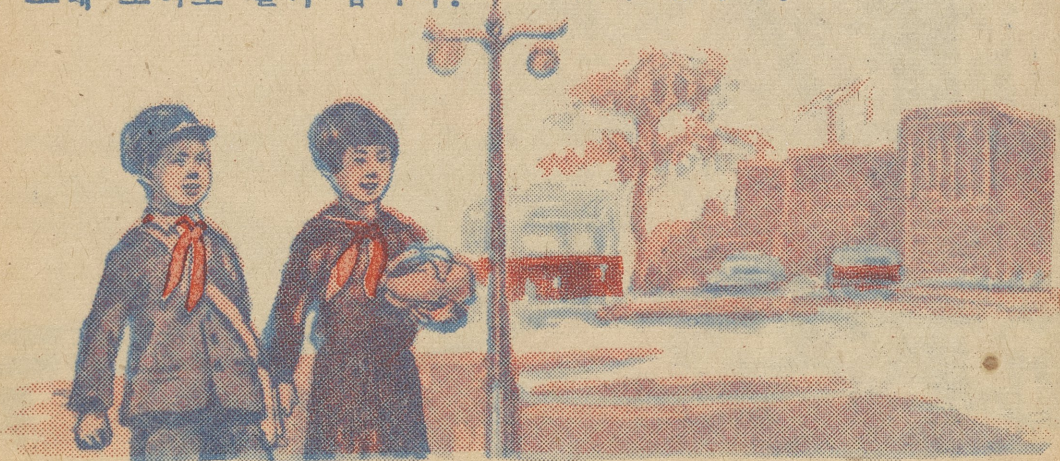
바다'가의 아침 해'빛은 산미처럼 쌓인 고기 비늘 우에 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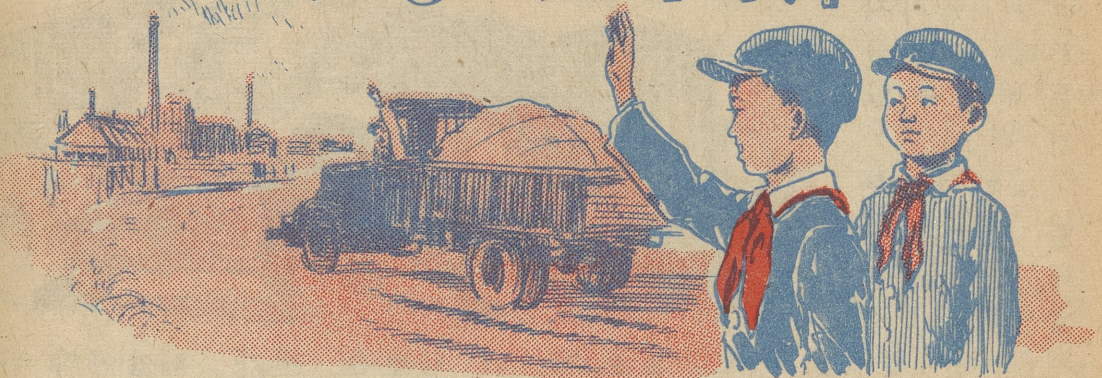
어린이 여러분! 어서 학교줄달음 칩시다.

하루 또 하루 보람찬 조국아침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아침마다 학교로 가는 길'에서 동무들의 가슴엔 새 기이 솟아 나지요.

얼마 전에 터전을 닦던 자에 이 아침 새 집들이 우뚝 아 있고 길'가에는 어제 아침없던 새 공원과 꽃밭들이 생났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조국의 아다운 아침은 이렇게 날마다 큰 기쁨과 행복을 싣고 우리들찾아 옵니다.

소년 소설

하영이 이야기

리 진 화

하영이네도 우리도 공장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둘이는 아주 친한 동무랍니다. 하영이와 나는 4학년 때도 한 반에서 공부했고 5학년이 된 지금도 한 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하영이와 나는 공장 정문 앞을 지난답니다. 복구하는 공장에 소용되는 자재를 싣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트럭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싣고 나오는 트럭들이 끊일 사이 없습니다.

씨원스럽고 기차게 일을 해내는 트럭들입니다. 이 트럭들을 보면 하영이는 이런 말을 하군 했습니다.

《만수야, 난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자동차란 묘한 것이거든. 운전대에 척 들어 앉아 손과 발만 놀리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싣구두 아무리 먼 길두 거침없이 달리지 않겠니! 그 뿐이냐 건설하구 복구하는데 소용되는 자재를 제때에 날라다 준다는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자동차 운전수만 돼 봐. 뜨락또르두 비행기두 다 운전할 수 있게 될거야》

어떤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트럭을 모는 운전수 아저씨들에게 모자를 휘두르고 나서 하영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 자동차 운전수 난 자동차 운전수가 되련다》.

《자동차 운전수 좋지》.

《그래 만수 넌 자동차 운전수 되고 싶잖니?》.

《난 네 트럭에 실을 물자를 딸리지 않게 만드는 완성공이 되겠다》.

나는 벌써 전부터 아버지 같은 기계공이 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욱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렇구나 너는 아버지한테 쩨흐 일을 배울 수 있겠다》.

토라지는듯한 하영의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쩨흐 일을 배운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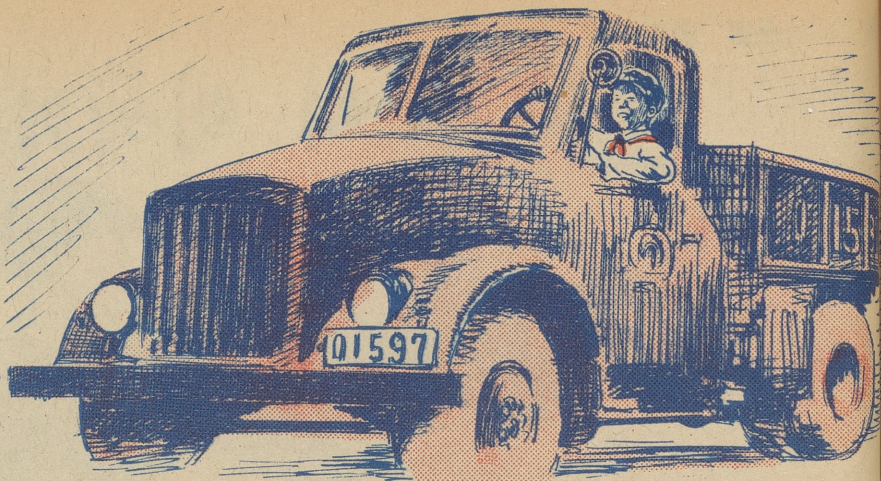
《그렇잖구. 그런데 난 운전수 아저씨를 친해 둬야겠어》.

《애 우린 지금은 공부를 잘 해야 돼— 지금은 말야 공장 일을 누가 알으켜 줘두 잘 깨닫지 못해》.

《잘 깨닫지 못해? 왜 난 운전수 아저씨 한테 배우문 알걸. 우리 아버지가 허락을 하신다면 난 래일부터라두 조수루 갈테야》.

《너 같은 앨 조수루 써 줘?》

《나보다 조금 큰 조수두 있는데 뭐. 운전수 아저씨를 친하면 말야 조수가 아니드래두 운전법을 알으켜 줄거야》.

이런 일이 있은 뒤로 학교 공부 끝난적 마다 나는 하영이와 어깨 나란히 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영이는 내가 붙들 사이 없이 한 팔로 책가방을 다가 끼고는 운동장으로 휭하니 넙다 달아나는 까닭이였습니다.

한번은 내가 하영이의 뒤를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까지 달아간 하영이는 수위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하고는 공장 구내로 들어가는 것이였습니다.

하영이가 어디로 갔느냐고요? 포장 직장을 찾았지요. 그 곳에는 포장을 끝낸 제품들을 실으려 온 트럭들이 렬을 이루고 있었지요. 하영이는 낯이 익어진 운전수 아저씨들을 졸라서는 운전대에 들어 앉군 했답니다.

《아 하 하영인 정말 운전을 배우려 드는구나—》.

그때부터 나는 하영이의 뒤를 따라서지 않게 되였습니다.

내가 교재원 당번을 보게 된 날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나는 하영이를 찾아 갈 겨를이 없었습니다. 교재원에 물을 주는 일을 끝내고 교재원 일지를 쓰고 났으나 하영이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학 종이 울렸어도 첫 시간이

끝났어도 하영이는 교실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학교에 다닌 뒤로 결석이라고는 모르던 하영이였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하영이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학하기 바쁘게 나는 하영이네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리며 앓고 있을 하영이의 모습을 그려보며 말이지요. 그런데 하영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하영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난 우리 하영이가 학교에 간줄만 알았더니? 참 책보가 그냥 있었구나 내가 배급을 타러 간 새 학교에 갔으려니만 알구 깽가락해 보질 않았댔다. 이거 어떻거니?》.

둘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퇴근한 하영이 아버지가 돌아 왔습니다. 하영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 일 났군. 그 녀석이 어제 밤에 숙제를 풀다가 불쑥 자동차 운전수가 된다기에 좋다구 그랬더니 정말 오늘부터 운전수가 되려구 나간게로군》.

《여보 좋다구 그랬으니까 그렇지요. 학교를 졸업하구야 운전수구 뭐구 된다구 깨쳐 주질 않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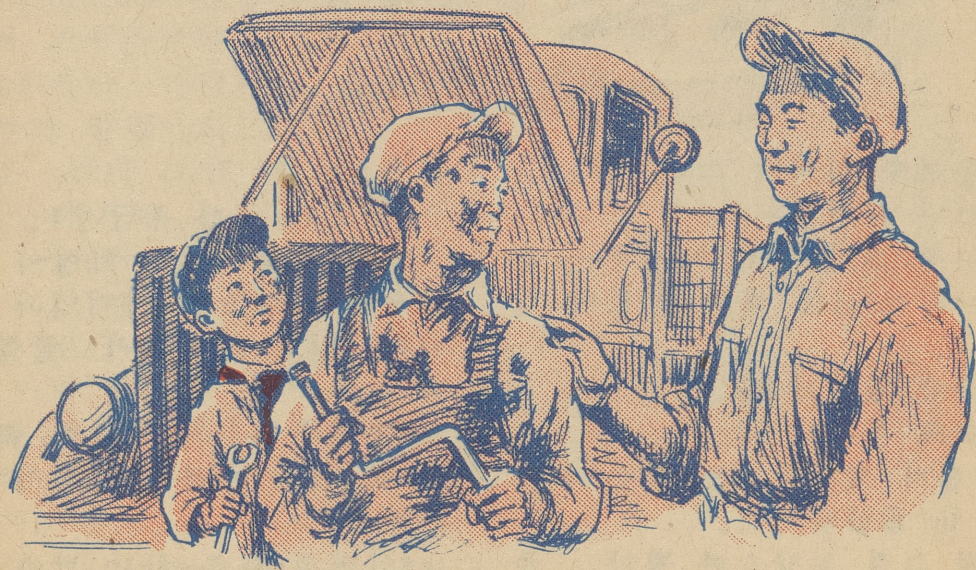
하영이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난처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하영일 곧 찾아 와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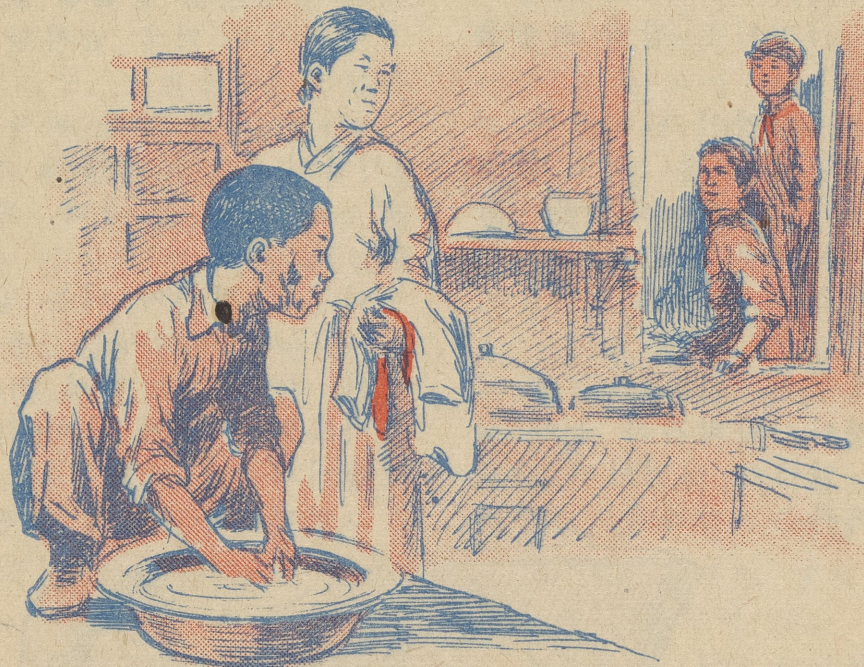
《하영인 포장 직장에 가 있을게 분명해요. 내가 데려오죠 뭐—》.

이렇게 말하며 나는 일어섰습니다. 행주 치마를 벗으며 하영이 어머니도 일어 서고 양복웃저고리를 께며 아버지도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현관 문을

으록 여는데 소년 하나가 넝큼 현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얼굴과 손에 기름 투성을 한 하영이였습니다.

하영이 아버지는 물끄럼히 하영이를 바라보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자동차 운전수가 됐야?》.

이 말에 하영이는 히죽이 웃였습니다.

《운전수 되려다 그만 뒀어요》

《그만 두어?》.

《아주 그만 둔건 아니구— 운전수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학교 공부애요》.

이렇게 말하며 하영이는 뒤머리를 긁었습니다.

《애 그걸 알았으면 됐다. 글쎄 네 주제 좀 봐—》.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하영이의 손을 끌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사이'문을 열어 젖히고 쭈구리고 앉으며 하영이에게 소리 쳤습니다.

《얘 너 누가 학교를 결석하구 조수가 되라더냐?》.

《아버지가 좋다기에 난 자동차 조수가 되려구 마음 먹었드랬어요》.

《학교는 그만 두구?》.

기름 손을 씻는 하영이 앞에 비누를 내놓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가루채서 물었습니다.》

《운전수만 되구 보면 학교엔 가 뭘 해요 운전수가 되자구 공분데요》.

《이녀석, 너는 하나 밖에 모르는 애로구나!》.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어떻게 타일러야 할지 몰라 이마'살을 지였습니다.

《난 운전하는 것만 배우면 운전수가 되는 줄 알았죠 머》.

《공부를 않구두 운전을 배울 수 있더니?》.

또 어머니가 아버지 말을 가루채서 순순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믄요. 조수두 운전을 썩 잘 해요》.

《그런데 왜 운전수 되려다 그만 뒀니?》.

《어머니 이것 보세요. 조수가 자동차 엔징의 고장을 고치고 있질 않았겠어요. 나두 조수 아저씨를 도와 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고쳐두 발동이 안걸려요. 운전수 아저씨가 오더니 고장을 순식간에 고쳐 놓드군요》.

《운전수야 엔징에 환한 법이니까 조수하구야 달치》.

《운전수 아저씨는 조수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를 하지 않은 탓에 그만 고장두 못 고쳐 낸다구요. 조수 보구가 아니라 나더러 하는 말 같아서 나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말에 하영이 아버지는 그만 이마'살을 펴며 어머니가 재촉하는 대로 하영이에게 타올을 던져 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다신 학교를 그만 두구 조수될 생각 말아. 운전수 아저씨가 잘 말했다. 우선 공부를 하구야 자동차 운전수구 기계공이구 될 수 있지. 지식이 없이 어떻게 기계를 다루겠니. 운전수되기 위해 우선 공부를 해라. 알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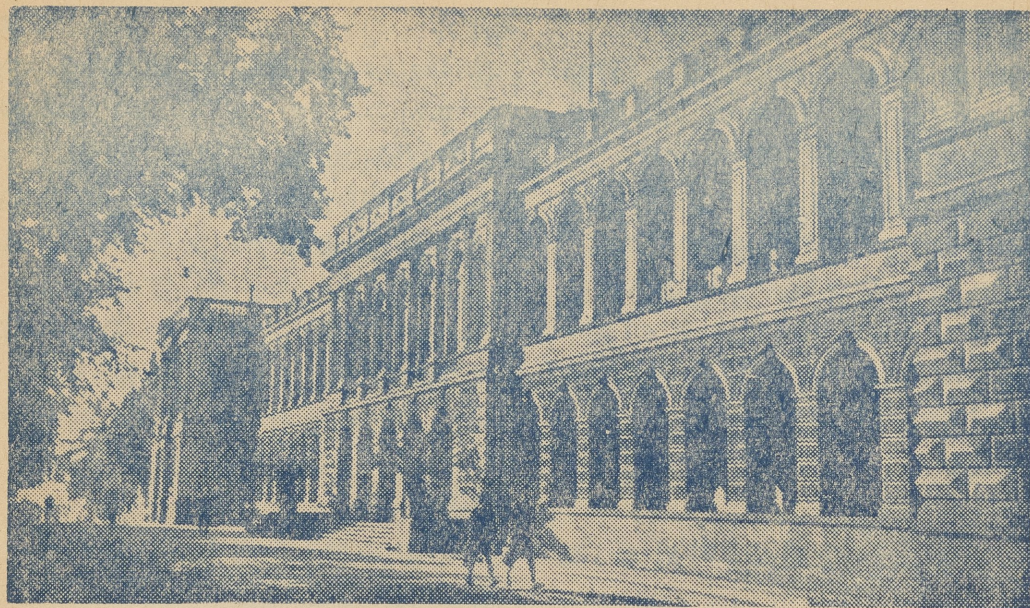
하영이네도 우리도 공장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학교에서 돌아 올 때도 하영이와 나는 공장 정문 앞을 지난답니다.

공장으로 드나드는 트럭을 바라보며 하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자동차 운전수가 될테야》

나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뭐 너 또 학교엘 결석하련?》

《안야 운전수가 되려구 공부를 잘 할테야》.

행복한 쏘련의 어린 벗들

리 북 명

뜨비리씨에로!

모쓰크바 비행장을 밤 열한시에 떠난 려객기가 뭇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남으로 남으로 날아 뜨비리씨 비행장에 닿은 것은 그 이튿날 아침 열시였습니다.

그런데 떠나온 모쓰크바는 봄이였었는데 닿고 보니 이곳은 어느덧 여름이였습니다. 그럼즉도 한 일입니다. 구루지야 가맹공화국의 수도인 뜨비리씨는 모쓰크바로부터 우리 나라 리수로 6천리도 더 떠러진 남방에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보아도 쏘련의 땅이 얼마나 넓고 큰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같은 쏘련 땅이면서도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서 같은 시각에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모쓰크바가 깊은 밤중일때 원동의 싸하린은 아침이며 모쓰크바가 봄일때 이곳 남방은 벌써 여름철입니다.

그러나 그 어데서도 쏘련 인민들은 한결 같이 잘 살고 있으며 아동들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뜨비리씨는 참으로 깨끗하며 공원처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평화스러운 도시의 거리 거리에는 싱싱한 잎을 뻗은 가로수가 두줄 석줄로 우거졌는데 그 록음이 더위를 가시여 줍니다. 또한 꽃밭에 활짝 피여난 아름다운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겨 줍니다.

이 거리에서 자동차로 두시간쯤 달리면 위대하신 쓰딸린 대원수가 탄생하신 생가가 박물관으로 되여 있는 고리시에 닿는

것입니다.

나는 모쓰크바나 레닌그라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뜨비리씨에서도 가장 행복스러운 쏘련 삐오네르들의 생활을 보았습니다.

뜨비리씨의 삐오네르 궁전은 바로 시 중심지에 있는데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경치 좋은 건물의 하나라고 합니다. 레닌그라드에 있는 쥬다노브의 이름을 가진 삐오네르 궁전은 레닌그라드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건물의 하나였습니다.

내가 뜨비리씨의 삐오네르 궁전을 찾았을 때는 마침 학교가 시험 기간이여서 궁전에는 삐오네르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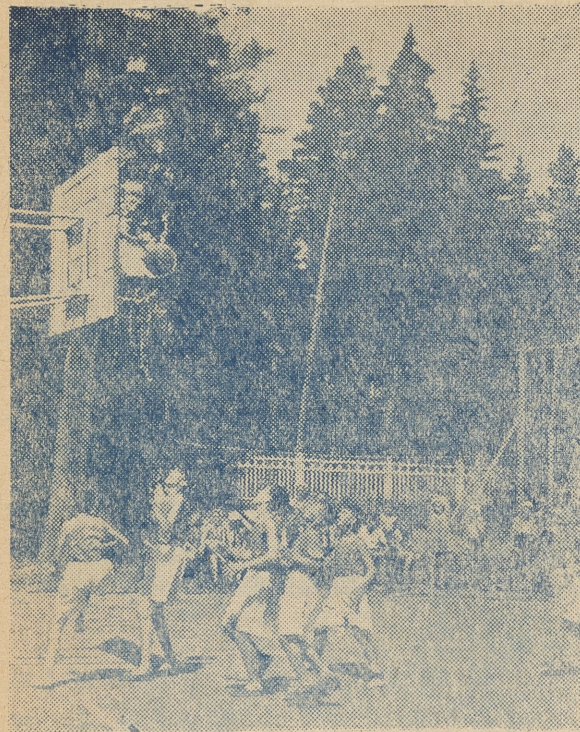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은 나를 기뻐 맞아 주었습니다.

《영웅 조선에서 오신 귀한 손님에게 전체 삐오네르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들은 나의 가슴에다 여러개의 꽃다발을 안겨 주었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풀어 나의 목에다 매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장차 시인이 되겠노라고 문학 써클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싸샤라는 이 소년은 《쏘베트 구루지야 방직 공장》 모범 로동자의 아들이였습니다.

소년들은 모두가 몸이 튼튼하고 명랑한데다 총명하고 귀염성 있는 삐오네르들이였습니다. 나를 반가이 맞아 주는 써클 책임자들도 모두가 훌륭한 분들이였습니다.

이 삐오네르 궁전에는 기술'과 예술'과 도서'과 체육'과 등 여섯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만하여도 문학실, 오락실, 지리실, 동물실, 록음실, 레닌—쓰딸린 연구실, 조각실 등 50개가 있고 이밖에 드라마 극장, 인형극장 아동공원, 체육 경기장과 과수원 등이

조선 가가와 뜨비리씨 삐오네르들의 상봉

롱구 경기를 하고 있는 삐오네르들

있습니다.

이 궁전에 조직된 각종 써클의 수는 실로 4백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삐오네르들은 자기의 취미와 재능에 알맞는 써클을 선택하여 마음껏 배우고 있습니다. 쏘련의 삐오네르 궁전이야말로 새 꽃봉오리들을 키우는 락원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선 오락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탁상 축구, 알 굴리기, 장기, 고기 낚구기 등 각종 오락 도구가 갖추어져 있는데 마침 두 소년이 마주 앉아 탁상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오락이였습니다. 나는 흥미를 가지고 승부가 끝날 때까지 구경하다가 이긴 아이와 맞섰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딴판으로 나는 불과 1분도 못되는 사이에 보기 좋게 꼴 두개를 먹었습니다. 오락실에서는 한바탕 명랑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문학실은 훌륭한 설비를 갖춘 방이였습니다. 로씨야의 유명한 옛 작가들과 쏘련 작가 시인들의 사진과 초상화가 벽에 나란히 붙어 있고 많은 문학 서적과 그림책이 책상에 빼욱히 차 있었습니다.

문학 써클원들은 이 방에서 습작을 하며 또한 작가들과의 상봉도 조직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문학실에서 싸샤의 시 랑송을 들었습니다. 머루 알처럼 가만 눈알에 머리칼 마저 검은 이 소년은 능난한 솜씨로 막심 고리끼 선생의 《해연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는 각 방을 참관하면서 그 설비가 굉장함에 여러번 감탄하였습니다. 나는 이 삐오네르 궁전에서 앞으로 우수한 작가 시인 예술가 배우 기술자 학자들이 자라나리라고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거리는 해'볕으로 몹시 더웠으나 수목이 무성한 삐오네르 궁전 정원은 서늘하였습니다. 참관을 끝마친 나는 정원 펜취에 삐오네르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선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처음으로 이렇게 청하는 것이였습니다.

《평양은 어떻게 복구되고 있습니까?》.

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요청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영웅 나라 소년단원들이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을 따라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가지가지 이야기와 웅장하게 복구 건설되여 가는 민주 수도의 모습을 들려 주었습니다.

내가 멀지 않아 평양에 훌륭한 아동 궁전이 건설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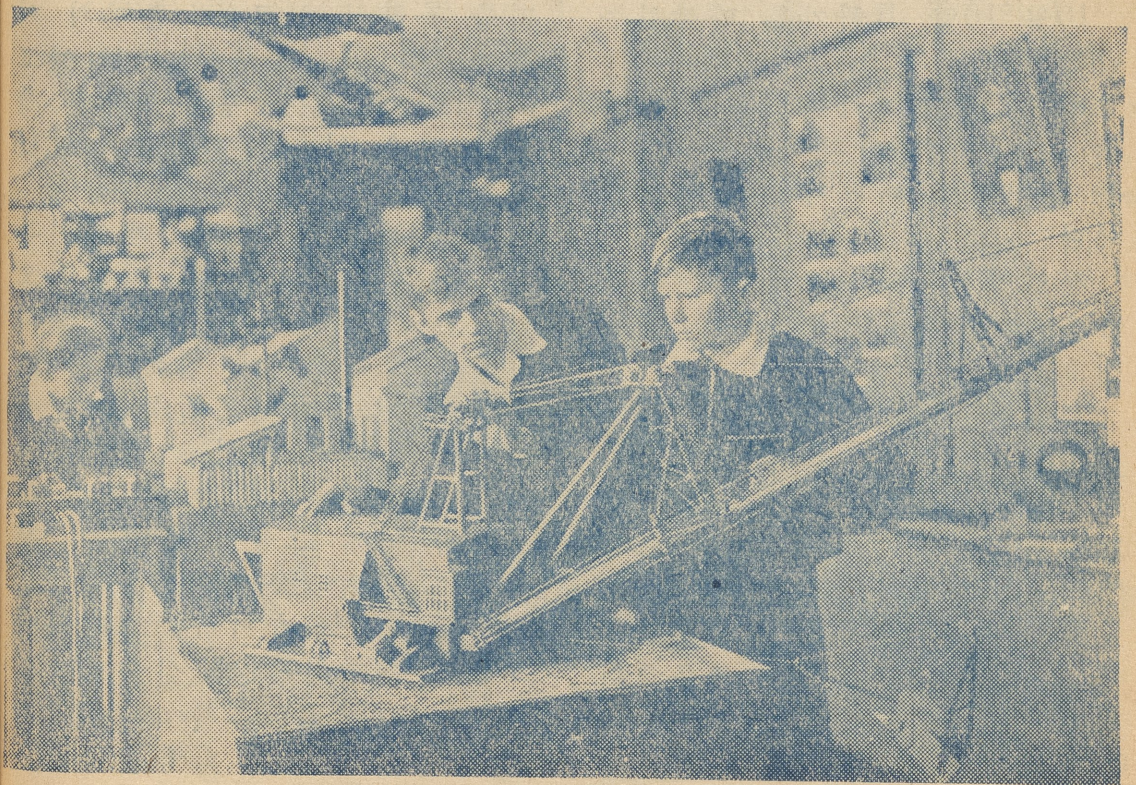
《우리는 조선 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학 써클 책임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선 소년들에게 우리의 축하를 전해 주십시요》.

싸샤와 그의 동무들은 두번 거듭 이렇게 말하면서 조선 소년들에게 주어 달라고 친선의 편지와 자기들의 붉은 넥타이를 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잊지 못할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랐습니다. 전체 쏘련 인민과 함께 쏘련 삐오네르들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그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

10페지 사진—뜨비리씨 삐오네르 궁전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삐오네르들

강원도 고산군 평화 인민 학교 대에서

신 진 균

10월 10일 1학기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대 모임을 알리는 유량한 라팔 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에는 곧 분단별로 대렬이 정돈되였습니다.

재언이와 옥녀와 태원이의 가슴은 오늘 기쁨으로 벅차 올랐지요.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서 항상 모범을 보인 그들은 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오늘 대 기'발 앞에서 영예의 표창으로 사진을 찍게 된 것입니다.

재언이는 제2분단 위원장입니다. 그는 항상 분단 동무들의 참된 벗으로 되여 왔지요.

재언이네 분단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의 과실이나 고구마를 훔쳐서 학교와 분단의 이름을 떨어친 동무들도 있었고 오 명진 한 봉림 동무들처럼 성적이 매우 낮은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재언이는 곧 분단 열성자들과 의논하고 이러한 동무들을 도와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동무들의 잘못을 항상 친절히 타일러 주었고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가 되면 분단 동무들과 함께 그들이 즐기는 뽈차기도 하고 재미나는 유희들도 조직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분단의 체육 선수로 되였고 분단 동무들의 체육을 위해 열성을 다하게 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언이는 자기의 일과표대로 저녁 한시간 반씩 공부하는 시간에는 꼭 명진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그의 학습을 꾸준히 도와 주었답니다.

재언이의 도움을 받은 명진이는 점점 성적이 올라가게 되였고 훌륭한 력사 년대표도 만들 수 있게 되였지요.

지난 초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재언이는 분단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학교의 닭과 오리들에게 겨울 동안 줄 모이를 모으자》.

이 제의는 모든 분단 동무들의 찬성을 받았지요. 《매일 공부가 끝나면 들판에 나가 떨어진 이삭들과 돌피를 모으자》.

이리하여 재언이네 분단에서는 벌써 한가마니의 돌피와 곡식 이삭들이 마련되였답니다. 그리고 이 분단에는 오는 봄에 훌륭한 교재원을 가꿀 수 있게 많은 꽃씨들도 준비되였습니다.

지금 제2분단 동무들은 모두 분단 위원장 재언이를 항상 자랑하며 그의 모범을 본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표창을 받는 옥녀와 태원이도 자기 분단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 있는 동무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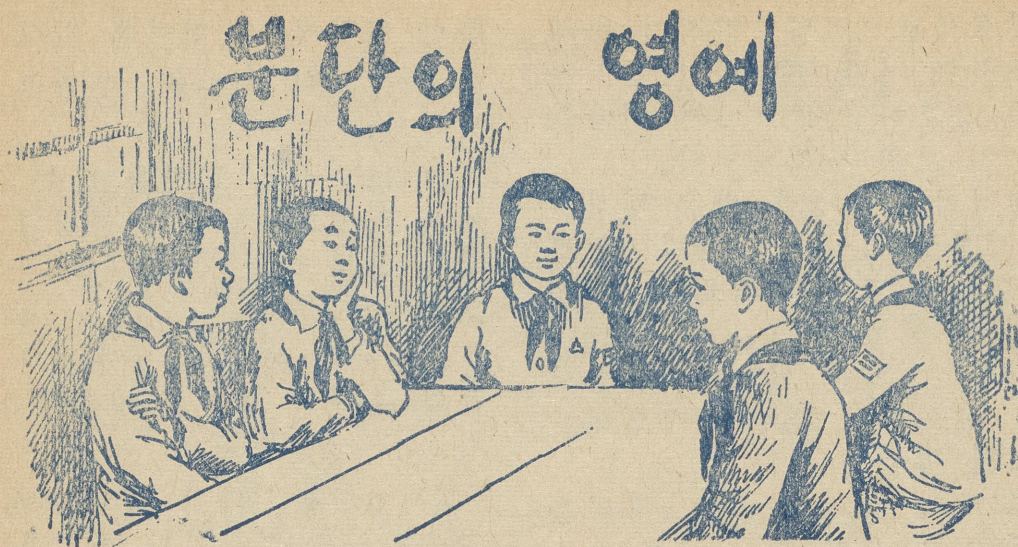
모임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그들의 훌륭한 모범을 칭찬했습니다.

《재언이는 나의 참된 벗입니다…》 하고 명진이가 자기를 친절히 도와 준 재언이의 노력을 이야기하자

《재언이는 우리 분단의 자랑입니다…》 라고 경선이도 그의 모범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재언이와 옥녀 태원이가 사진 찍으려 대 기'발 앞에 나와 서자 동무들은 꽃다발과 박수로 그들을 기뻐 맞아 주었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의 하늘 아래 대 기'발은 그들의 머리 우에서 펄펄 휘날렸습니다.

분단의 영예

함남 인흥 제2 중학교(인민반)대에서
박 정 렬

언제나 서로 힘을 합해 분단의 영예를 떨쳐오던 12분단에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날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거리에 나온 12분단 중금이가 다른 학교 소년단원을 때렸습니다.

이 일은 곧 다른 학교들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자자했지요.

며칠 전에도 중금이는 운동장에서 놀다가 녀학생들이 고무줄 넘기를 하는 데에 뛰여 들어 고무줄을 빼앗았습니다.

새학년도가 시작되여 중금이가 저지른 이러한 일은 벌써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요전엔 또 2학년 동생들의 공을 막 찢어 놓고 도망치지 않았겠니…》하고 화자 동무는 중금이가 2학년 동생들을 울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12분단의 수치야, 2점짜리까지 있구…》.

성자 동무는 분단 모임에서 《중금 동문 락제 점수를 없애기 위해 공부할 대신에 패니 우쭐해서 약한 동무들을 쩍 하면 때려 주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반은 중금 동무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지요. 언제나 반 동무들이 중금 동무의 나쁜 점을 깨우쳐 주면 《흥 너희들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코 웃음을 쳤답니다.

중금이네 반원인 인순 동무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반장 원균 동무는 《중금이만 나무랠 수 없어. 우린 여때까지 그애를 친하게 대해주지 않았어》라고 말했지요.

분단 모임에서 동무들은 재가끔 중금 동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분단 위원장 문원 동무가 일어서며 《우리들은 중금 동무가 자기 혼자 나쁜 버릇을 고치려니 하고 기다려서는 안되겠어요. 서로 도와 주어야지》하고 중금이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를 친절히 도와 주지 못한 분단 동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단 위원장의 이 말은 중금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중금이는 머리를 숙인채 앉아 있었지요.

이 모임에서 분단 동무들은 중금 동무가 나쁜 장난에 휩쓸리지 않도록 꾸준히 돌보아 주며 뒤떨어진 학습을 도와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분단의 위임으로 원균 동무는 먼저 중금이가 일과표를 세우는 것을 도와 주었지요.

일과표를 세울 때 중금이는 《운동 련습은 언제 하니?》하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중금이는 퍽 운동을 좋아했지요. 그는 운동에만 정신을 팔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일이 많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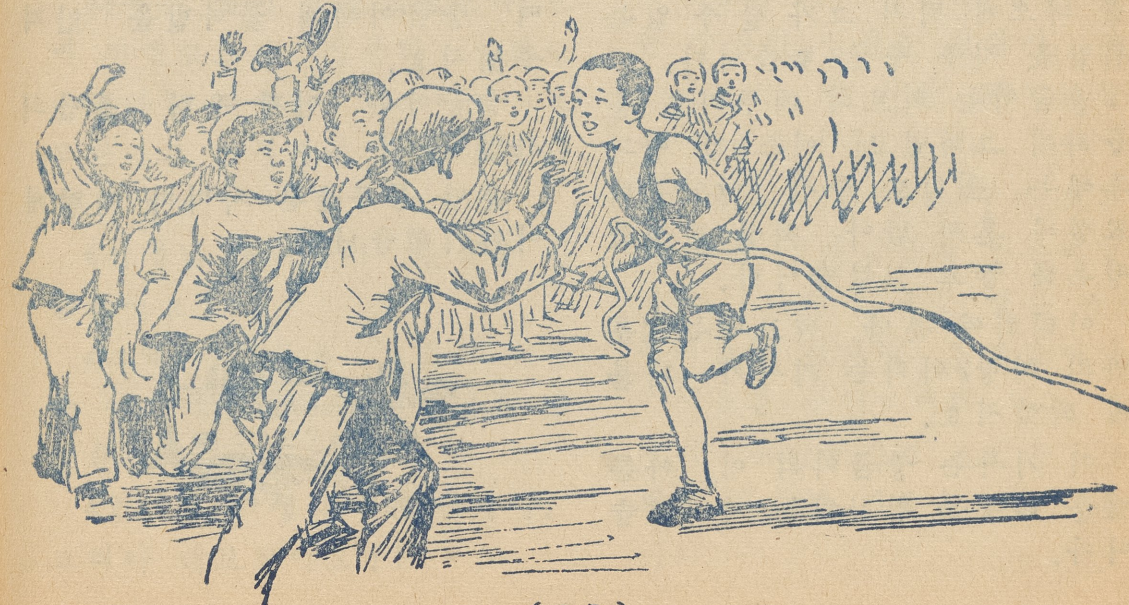
분단에서는 락제 점수를 없애지 않으면 중금이를 운동회에 참가시키지 않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중금이는 지금까지 체육 련습에도 참가 못했지요.

《공부부터 먼저 해야지, 운동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겠니!》 원균이는 이렇게 타일러 주며 일과표를 세우고 집에서 꼭꼭 복습하는 습관을 붙이도록 그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반 동무들은 중금이의 복습이 끝난 다음엔 그가 좋아하는 운동 련습도 같이 했지요.

반 동무들은 중금이와 함께 군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쾌활한 꼬마 가족》 《완두꼬투리》 《동무와 원쑤》 등 재미 있는 책을 읽고는 읽은 책 이야기 모임도 가졌지요.

반 동무들을 피해서 혼자 다니며 장난하던 중금이도 점점

반 동무들과 친해졌고 책 읽는 데도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후 어느 날이였습니다.

분단에서는 영화 《두 동무》를 보았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학습을 게을리 하는 심한 장난'군인 위짜와 끄쓰짜를 삐오네르 분단 동무들이 어떻게 도와 주었는가를 잘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단 동무들은 중금이를 더욱 훌륭히 도울 것을 마음 다졌습니다.

중금이도 이 영화에서 산수를 싫어하고 숙제도 잘 하지 않는 위쨔와 지난날의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중금이는 《나는 꼭 위쨔를 본 받아 나쁜 점을 고쳐 나가야겠다》하고 결심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중금 동무가 숙제도 잘 하고 반 모임에도 잘 나오게 되자 그가 할 수 있는 위임을 자주 주군 했습니다.

중금이는 벽보의 테두리도 훌륭하게 그려냈고 어느 날 방과 후에는 위임도 주지 않았는데 교실에 혼자 남아 책상 걸상을 정돈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분단 벽보에는 《분단의 자랑》이라는 기사가 나붙게 되였지요.

이 기사는 중금이의 이 아름다운 행동을 칭찬하는 기사였습니다.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규률있게 학습을 해가는 중금이의 성적은 점점 좋아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학기말 시험에서는 뒤떨어졌던 국어'과에 우등을 했습니다.

×　×

소년단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운동회 날이였습니다.

학기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중금이는 기쁜 마음으로 운동회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분단 별 리레가 시작되였을 때였지요. 둘째번에 달린 광욱이는 바동을 미처 못받아서 다른 분단에 뒤떨어지게 되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손에 땀을 쥐며 응원했지요.

마지막번은 중금이의 차례였습니다.

중금이는 바동을 날쌔게 받아쥐고 앞선 동무들을 쭉쭉 내 빼여 끝내 1등을 했습니다.

동무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중금이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었지요.

중금이는 인제 우리 분단의 자랑이야!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떼 1호 건물

레닌그라드 제51학교 교재원에는 조그만 집이 한 채 서 있습니다.

이 집의 바닥은 흙이고 벽과 지붕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밖은 아직 춥고 사방엔 눈이 쌓여 있었으나. 집 안에서는 오이, 일년감, 옥수수와 기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삐오네르들은 이 집을 《떼—1호》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퍽 전부터 이 학교 삐오네르들은 학교에 온실을 만들 것을 생각해 왔지요.

하루는 싸샤 꾸르노쏘브와 보바 끼쎌료브가 생물학 선생인 존경하는 와씰리 안드레예위츠 드란니고 선생에게 달려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온실을 만들겠어요!》.

《그래 너희들은 그것이 쉬운 줄 아느냐?》 하고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쉽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겠어요!》.

다음 날 분단 위원회에서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만들기로 하자》하고 의논됐습니다.

그러나 재료를 어데서 구해 오겠습니까?

《판자랑 유리랑은 학교에서 대 줄께다. 그러나 증기를 보낼 빠이쁘를 어데서 가져 올가》 하고 나따샤 체쓰또위츠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맡겨 다오》 하고 싸샤, 보바 그리고 왈랴 알렉싼도로브가 제의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훌륭한 정찰병들이였습니다. 이들은 방금 스칠을 수리한 집들을 샅샅이 찾아 다니면서 내 버린 빠이쁘들을 주어 왔습니다.

온실을 짓는 것은 구역 교육부와 교장 선생님에게 의논되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어린이들이 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들은 수키로메터 되는 거리에서 손달구지로 온실을 짓기 위한 귀중한 짐들을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난방 장치를 만들어 놓는 일이였습니다. 어데서 열을 가져 온단 말입니까? 학교 스침 장치에 이어 놓을 수도 있으나 잘못하다가는 학교 빠이쁘까지 얼게 하여 모두가 떨게 될 수도 있지요.

이들은 생각해 낸 끝에 자기들의 힘으로 난방 장치를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낡은 증기통과 솥을 얻어다 놓고 수직 당번까지 짜가지고 이 증기통에 증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학부형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수직을 시키다니!》.

그래서 어린이들은 다시 딴 수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이때 누구인가 학교 마즌편 거리에 잘 아는 수도 수리공 빠샤 아저씨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모시고 의논해 보기로 했지요.

학교 난방 장치를 돌아본 빠샤 아저씨는 인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빠이쁘에 이을 수 있는데 도랑을 좀 깊숙하게 파야겠다. 그런데 그걸 해 낼가? 13 메터쯤은 파야겠는데 땅이 얼어서 원…》.

빠샤 아저씨는 어린 건설자들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하고 어린이들은 소리쳤습니다.

상급학년 분단부터 차례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삐오네르들은 흙을 파내고 목수 일과 미장 일도 하였고 또 유리도 짜르고 전기 장치도 직접 제 손으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겨울 방학 전에 바깥 일을 다 해치웠습니다. 소년들은 진흙을 바르고 소녀들은 문지방과 틀에 색칠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수 많은 푸른 식물들이 유리로 만든 이 집에 옮겨졌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소채를 심고 맨 웃층에는 이곳으로 치료하러온 병든 꽃들을 놓았습니다.

《참 훌륭한 온실이다!》이 학교의 삐오네르들은 이렇게 이 온실을 자랑합니다.

(아·모이쉐쯔)

☆ ☆ ☆

도로 건설장에서

우리들은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한 산악 지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산 속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니 사방은 가파로운 벼랑이고 뱀같이 구불구불 감돌아 든 좁은 길 우에는 굉장한 암석들이 내려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골짜기로는 내'물이 흘러 내리는데 절벽 사이에는 통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쾅 하고 터지는 발파 소리와 벼랑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쿵쿵 울리는 괭이 소리와 로동자들의 어기영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다시 한 구비를 도니 거기에는 신작로가 나타났습니다.

수 천명 로동자들이 굴을 뚫기 위하여 벼랑을 까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벼랑을 까내는 괭이와 마치들이 번뜩이며 수십개의 가래 삽출이 움직이고 밀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우에는 뽀얗게 먼지가 서리여 있었습니다.

이곳 농민들도 모두 동원되여 철로를 놓는 일을 돕고 있고 로동자들은 일을 기한 전에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해는 바로 머리 우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벼랑 짬으로 졸졸 흘러내리는 찬 랭수를 한 컾 떠마시며 마른 목을 추기고 싶었으나 강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경사진 버럭 데미 뒤에서 머리끝이 하나 불쑥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는 목에 단 붉은 넥타이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퍼런 옷을 입은 남자 애가 버럭 데미 우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멘 멜대에는 큰 단지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단발을 한 처녀애들이 또 단지를 들고 뛰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에서부터 한줄로 늘어 서서 오솔'길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맨 우에 오른 애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고 싶은 분은 이리로 오십시요!》.

로동자들은 모두 시원한 랭수를 마시려 어린애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들이 물 마시는 동안 단발머리 장 순이는 아저씨들에게 삥둘러 싸인채 눈을 깜박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장 아저씨네 밭에서는 소년 선봉대 브리가다가 벌써 김을 다 맸고 착암수인 왕 아저씨네 집으로 거리에 있는 아들한테서 온 편지를 아이들이 전했다는 이야기며 그리고 철도 로동자 브리가다원인 리 아저씨네 앓는 아주머니를 도우려 두 애가 갔는데 그들은 지금 부엌일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들은 물을 마시고 좀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왔던 어린이들은 다시 온 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딴 곳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 갖다 드리려는 것이였습니다.

소년 선봉대원들은 부서진 벼

랑 새 좁은 길을 따라 줄을 지어 강으로 내려 갔습니다. 어린이들은 점점 모퉁이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그리고리예브)

☆ ☆ ☆

삐오네르는 불을 껐다

쏘우쿠프 주택에는 두 어린 처녀 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 아래인 마그다는 잠이 들었고 인제 겨우 세살인 웨라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라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려고 했습니다. 웨라는 의자를 창밑에 갖다 놓고 거기에 올라서서 문지방을 짚고 거리를 내다보면서 카텐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자 카텐 한 끝이 창 밑에 놓여 있는 벌겋게 달은 전기 곤로에 닿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삐오네르인 라쟈 람보이가 학교로 가고 있을 때

《불이야! 불이 났다!》하고 거리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녀애가 가슴을 울렁거리며 건너편 집을 가리켰습니다. 라쟈는 그리로 뛰여 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2층 복도로 기여 올라갔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한 방문 앞에서 두 세 사람이 어쩔지를 몰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여 누구인가 도끼를 가져 왔습니다. 도끼로 문을 몇번 쳐보았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그만 구멍이 뚫어졌는데 그리로는 작은 어린애만이 기여 들어갈 수 있

었습니다. 이때 라쟈가 기여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연기가 휩싸고 있어 숨을 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라쟈는 이때 어린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바로 창'가에 한 처녀 애가 바싹 기대여 서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지 않았겠어요. 불은 아직 그 쪽까지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라쟈는 두 손으로 어린애를 부둥켜 안고 문 있는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구멍으로 어린애를 내밀어 복도에 서 있는 녀자에게 주고 다시 연기 속으로 기여 들어갔습니다. 인제는 불을 꺼야 했습니다. 라쟈는 창'가로 다가가서 불이 펄펄 붙고 있는 카텐을 낚아 채여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여 사람들이 문을 부시고 라쟈를 도우러 들어왔을 때에는 불은 거의 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찌나 빨리 진행되였던지 옆방에서 자고 있던 웨라의 동생 마그다는 아직 그냥 잠자고 있었습니다. 라쟈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는 불고는 바람에 잊어 버렸다) 학교로 향해 달음질쳐 갔습니다. 수업은 벌써 시작되였으니까 늦은데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했지요…

…두 주일이 지나서 뻬오네르인 라쟈 람보이는 소방대장 앞에 섰습니다.

중좌인 소방대장 워리스크는 라쟈가 용감하게 모범적인 행동을 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라쟈의 손을 쥐여 흔들며 그에게 팔뚝 시계 《뻬뻬다》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시계의 뚜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한데 대하여 이것을 선물로 드린다》.

(체코슬로바키야 아동잡지 《우등'불》에서)

중앙 기상대 천문부
최 환

맑게 개인 밤 하늘에 은빛 같이 빛나는 달을 바라볼 때 누구나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달에 대한 노래를 지어 읊었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노래 부른 그 달은 어떻게 생긴 것일가요?

옛날 사람들은 달에 옥토끼 한마리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였고 큰 계수 나무가 하나 솟아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달 세계는 토끼도 살 수 없으며 계수나무도 자랄 수 없는 차디 차고 또 시컴한 곳입니다.

동무들은 은빛 같이 빛나는 밝은 달이 왜 그렇겠는가고 놀랠 것입니다.

달은 해나 어느 별보다도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깝답니다. 만일 우리들이 한시간에 100리씩 가는 기차를 타고 간다면 약 400일 걸리며 만일 한시간에 1,500KM씩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면 10일 가량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 세계에 가 본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다만 망원경으로 보았을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384,404KM나 된다고 합니다.

달의 크기는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훨씬 작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수박이라고 치면 달은 보통

사과알만 합니다. 지구의 직경은 12,700KM인데 달의 직경은 3,476KM이니까요.

그러면 달은 우리 지구와 무엇이 다를가? 달 세계는 어떤 곳일가? 하고 동무들은 또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부터 달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미 있는 것을 이야기합시다.

달 세계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가볍게 들 수 있게 되지요. 지구 우에서 60Kg 되는 물건은 달 세계에서는 10Kg의 무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동무들이 달 세계에 가서 6M나 되는 벼랑 우에서 뛰여 내린다 하여도 지구에서 1M 되는 높이에서 뛰여 내린 것만큼 밖에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이것은 달이 지구보다 훨씬 가볍고 따라서 달은 지구가 물건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잡아 당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번에는 망원경으로 달 세계를 한번 바라다 볼가요.

보통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거울과 같이 밝고 매끈해 보이지요. 그러나 망원경으로 보면 거기에는 산도 있는가 하면 넓은 벌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는가 하면 기다랗게 패여진 고랑도 있습니다.

산은 있다 하여도 지구의 산과는 같지 않고 나무 하나 자라지 않는 험악하게 높이 솟은 것들 뿐입니다. 달 세계의 제일 높은 산은 9,000M나 된다고 합니다.

달 세계를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보면 달 표면에 있는 많은 구멍들이 눈에 띄우지요. 그 구멍들은 화산들이 터져서 생긴 분화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보통 그것을 분화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분화구들은 수천개나 되는데 큰 것은 직경이 225KM나 되며 작은 것은 직경이 300M 정도입니다.

달에는 또 바다라고 불리우는 곳도 있습니다. 동무들이 망원경 없이 달을 주의 깊이 바라보면 달 표면의 어떤 부분은 아주 밝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검으

망원경으로 본 달의 첫 4분지 1부분

스레한 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밝게 보이는 부분은 륙지이고 검은 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다라고 부르는 곳은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널다란 벌을 이루고 있을 따름입니다.

동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인 대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달 세계에는 우리 지구와는 달리 달을 둘러 싸고 있는 대기가 없는 것입니다. 달은 어느 때보다도 맑은 밤이면 아주 똑똑히 보입니다. 이것은 달 세계에 대기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한가지 실례이지요.

대기가 없는 달 세계에서는

망원경으로 본 달의 끝 4분지 1부분

태양 빛이 비치지 않는 쪽은 그야말로 암흑 세계입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해가 진다 하더라도 곧 캄캄해 지지 않고 얼마 동안은 훤하게 밝아 있지만 달 세계에서는 해가 지면 곧 한발자국 앞도 내다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달 세계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흐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푸른 하늘이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가 없는 하늘은 언제나 새캄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지구에도 대기가 없게 된다면 달 세계에서처럼 캄캄한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은 대기 속에서 태양 빛이 산란되여 (흩어지여)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대기가 없으면 태양 빛이 산란되지 않으며 따라서 하늘이 캄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는 일도 없지요.

달 세계에서 또 한가지 재미 있는 것은 달 주위에서 제아무리 큰 폭탄이 폭발되더라도 요란한 폭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리 없는 세계입니다. 왜 그럴가요? 소리를 전해 주는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 표면에는 큰 온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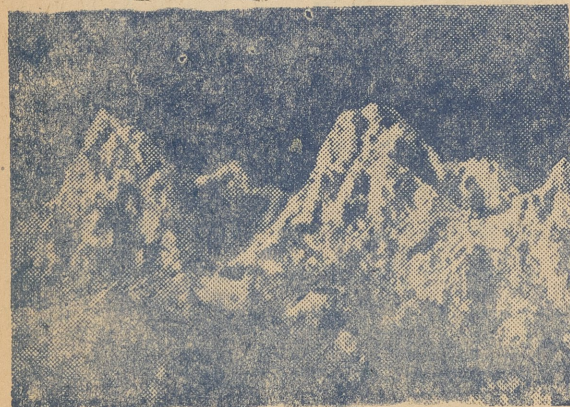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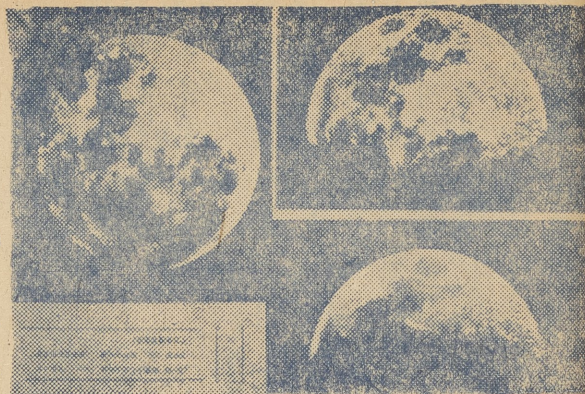
태양 빛을 받는 쪽은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서 섭씨 100도 이상에 다달으며 태양 빛이 쪼이지 않는 쪽은 반대로 온도가 심하게 내려가서 령하 160도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일이 한달 동안에 각각 약 두주일씩 계속되는데 태양 빛을 받는 낮이 약 두주일이며 태양 빛을 받지 못하는 밤이 약 두 주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달과 같이 온도가 심하게 변한다면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온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온도의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무들은 밤 하늘에서 가끔 류성(별찌)을 보지요. 달 세계에는 이 류성이 날아 떨어지군 하는데 이것은 달 표면에서 무서운 폭발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달에는 류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가

망원경으로 본 달의 표면 모형

왼쪽—망원경으로 본 만월
오른쪽우—망원경으로 본 열하루날 달
오른쪽 아래—망원경으로 본 초이레' 날달

없기 때문에 1초 동안에 20—30KM 심지어는 50KM라는 놀라운 속도로 떨어지게 되므로 떨어지는 순간 류성을 녹일만한 높은 열을 내게 되며 폭탄처럼 폭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던 달 세계는 바로 이러합니다. 달은 푸른 풀 하나 없고 물 한방울 없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아름다운 달을 바라 보게 되는 것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달은 자기 몸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지요.

지금 과학자들은 달 세계에로의 려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달 세계에 가게 되면 달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

백암산에로의 행군

지난 일요일이였습니다. 우리들은 대 기'발을 날리며 즐거운 가을의 행군을 떠났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했어요.

행군대는 목적지 백암산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대 휴식이 벌어지자 동무들은 서로 재미나는 유희와 오락을 시작했고 노래와 춤으로 즐기며 놀기도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우리들은 곧 각 분단 별로 나뉘여

져 식물 채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우리들은 머루, 다래, 오미자 등 20여종의 열매들을 땄고 젓나무, 참나무, 가래나무 등 50여종의 목본 식물표본들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학과 학습을 도와 주지요.

행군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즐거운 행군의 하루 생활을 일기와 작문으로 적어 갑니다.

강원도 금강군 세동 인민 학교 대

제5 분단 강 송 자

훌륭한 모범

우리 학교 대 제2 분단은 언제나 다른 분단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대 벽보에는 2분단에서 한 훌륭한 일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지요.

이번 새로 나붙은 벽보에도 그들이 책상과 걸상을 고쳐낸

모범이 소개되였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였답니다. 분단 위원장 김 문용 동무는 분단 동무들과 함께 톱과 대패 마치를 가지고 못쓰게 된 책상들과 걸상들을 고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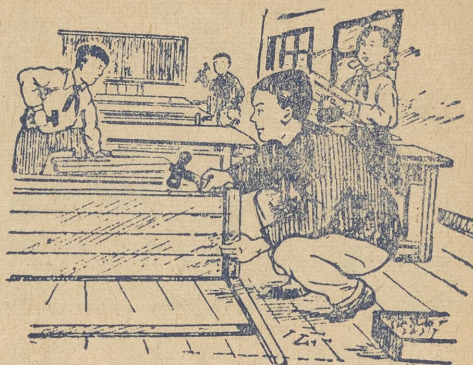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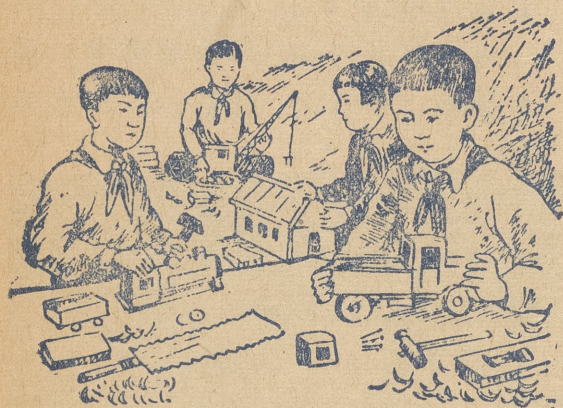
이 훌륭한 모범은 지금 각 분단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평북도 정주군 광동 인민 학교 대
벽보주필 문 기 수

우리의 공작실

우리 학교에는 훌륭한 공작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학부형들이 마련해 주신 톱, 낫, 칼, 대패, 끌, 마치, 자 등 공작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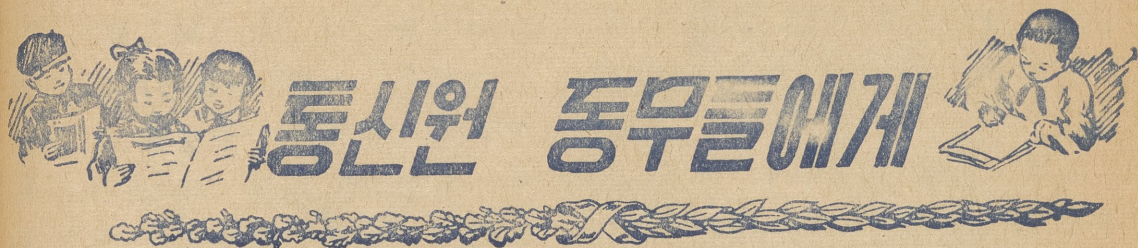
— ☆ —

구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작실에서는 어린 공작가 최 경식 동무를 비롯한 73명의 동무들이 모여 여러가지 훌륭한 모형과 기구들을 만들고 있지요.

벌써 오락 기구로서 고누판, 장기판, 네모판들과 그리고 훌륭한 꼬마 자동차와 꼬마 비행기들도 만들어 냈습니다.

이 훌륭한 모형들은 10월 혁명 38주년 기념 교내 작품 전람회에 내 놓았습니다.

강원도 이천군 산지 인민 학교 대
위원장 홍 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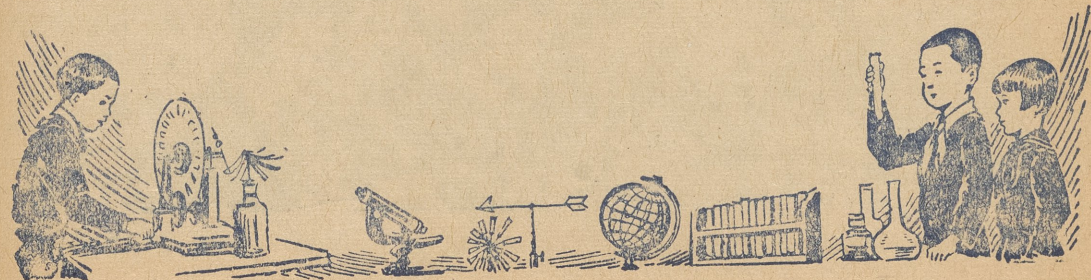
통신원 동무들에게

날마다 편집부는 통신원들과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통신 원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오늘까지(10월 10일) 300여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황해 북도 수안군 수덕 인민 학교 리 규환 동무, 평안 남도 승호군 제4 중학교 인민반 석 치호 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통신원과 독자들이 자기 학교 소년단 소식을 자주 보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학교 대, 분단들에서 보내 온 편지들은 소년단원들이 장차 조국의 훌륭한 일'군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학습하며 소년단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잡지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함북 길주군 덕산 인민 학교 김 춘자 동무가 보낸 《참된 동무가 되자》, 량강도 풍서군 약수 인민 학교 김 태호 동무가 보낸 《명랑하고 씩씩하게》, 황해 남도 안악군 류설 인민 학교 김 보옥 동무의 《우리들의 명절 맞이》, 평안 남도 증산군 발산 인민 학교 리 두찬 동무의 《우리 분단의 과학 공부》, 강원도 원산 제6 인민 학교 리 윤희 동무의 《자연'과 공부》 등은 좋은 통신들로서 잡지 《소년단》

의 내용을 더욱 빛내였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편지—통신도 많이 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너무 간단히 써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실례로 풍암 인민 학교 리 혜자 동무가 보낸 어린 과학자 모임에 대한 통신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은 참으로 재미 있었다》고 썼는데 재미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차에 대한 실험, 증류수에 대한 실험 등을 했다고 썼습니다. 어떤 실험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실험했고 실험한 결과 교과서에서 배운 것(무엇)을 어떻게 잘 알게 되였는가가 씌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락 인민 학교 박충남 동무는 《인기 끄는 피마 영사기》라는 아홉 줄로 된 통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였습니다.

그림을 그린 《필림》은 무슨 종이로 했으며 무엇으로 어떻게 비쳐 보는지 또 영사기는 얼마나 크게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씌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을 보낼 때에는 항상 그 내용이 《소년단》 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는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언제나 자세히 써야 하며 많은 동무들이 의논한 후에 빨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무들이 사랑하는 잡지 《소년단》을 더욱 재미있고 훌륭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훌륭한 통신들을 더 많이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불가리아 옛이야기

벗은 곤난속에서

안띠

한 때는 여우와 고슴도치가 퍽 친한 사이였답니다. 밤 낮 그들은 헤여지지 않았지요.

한번은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지요.

《얘 고슴도치야. 포도원에 가서 익은 포도를 한번 맛보자꾸나!》.

《여우야 나도 가군 싶은데 주인이 무서워》.

《뭐가 무서워 —여우는 고슴도치를 달랬지요— 나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아무일도 없어, 난 고난을 피하는 꾀를 삼백가지나 아는데 넌 몇가지나 알어?》.

《난 세가지 밖엔 몰라, 그러나 이것은 틀림 없는거야, 난 이것을 정말 곤난한 때 쓸려구 아끼구 있지》.

《그렇지만 내건 아낄 필요가 없어, 내건 한 평생 쓰고도 남을테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으로 갔답니다. 꾀를 겨우 세가지 밖에 모르는 고슴도치는 덫에 걸릴가 겁나서 조심조심 걸어갔지요. 첫 포도 넝쿨이 있는데까지 가자 곧 포도를 뜯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삼백가지의 꾀를 아는 여우는 길을 살펴보지도 않고 이 넝쿨 저 넝쿨로 막 뛰여 다니며 잘 익은 포도만 골랐답니다.

그런데 별안간 덜커덕! 그리고 더는 뛸 수가 없게 되였지요. 발이 덫에 걸렸으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저쪽에서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지요. 여우는 주인을 보자 고슴도치에게 청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얘 고슴도치야, 친한 동무

야, 주인을 피하게 어서 꾀 하나를 주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말하지 않았니, 꾀를 삼백가지나 안다구》 하고 고슴도치는 놀랬지요.

《알아, 알구 말구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내 꾀들은 몽땅 머리에서 달아나구 말았어. 주인이 오기 전에 어서 네 꾀를 하나 주렴》.

《그럼 좋아. 대 주지. 주인이 오거든 너는 덫이 열릴 때까지 아양을 떨란 말이야. 그런 다음엔 알지, 힘껏 뛰려무나》

고슴도치는 이렇게 말하고 가까운 숲으로 달아나서 여우를 기다렸답니다.

주인은 덫에 걸린 여우를 보자 기뻐서 웨쳤답니다.

《정말 걸렸구나! 놓치지 않을 테야. 오늘은 마누라에게 값비싼 목도리를 하나 갖다 줘야지!》.

이때 여우는 주인에게 매여달리여 애처럽게 울며 주인의 손을 핥기 시작했지요. 주인은 영낙없이 여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만 덫을 열었지요, 그랬더니 여우는 꼬리 빠지게 달아나 버렸지요.

며칠 후에 여우는 또 다시 고슴도치에게 포도원으로 가자고 하였지요.

《넌 벌써 덫맛을 잊었느냐?》 하고 고슴도치는 물었지요.

《난 아무 것도 무섭지 않아, 내겐 삼백가지의 꾀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또 다시 포도원으로 갔답니다. 고슴도치는 첫 넝쿨에 이르자 마자 덤비지 않고 포도를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여우는 또 잘 익은 포도를 골라 이 넝쿨 저 넝쿨 뛰여 다니다가 덫에 걸렸지요.

《아야, 아야. 고슴도치야, 막 죽겠구나, 빠져 나갈 꾀를 하나만 내게 대여 주렴》.

고슴도치는 여우를 가엾이 여겼지요.

《주인이 오거든 넌 죽은체 하렴. 주인은 저녁에 집으로 가져가려고 너를 포도원 한 구석에 놓아 둘거야. 그럼 알지 달아나렴아!》.

여우는 그렇게 하였지요. 그랬더니 정말 주인은 포도원 구석에 갖다 놓고 다시 포도원을 돌아보려 갔지요. 여우는 또 후닥닥 일어나서 곧장 숲으로 달아났지요.

또 한번 주인은 빈 손을 털었지요.

《음, 참 교활하군, 인젠 암만 죽은체 해도 믿지 않을테야 당장 집으로 가져가야지》.

얼마 후 여우와 고슴도치는 또 다시 포도원으로 갔답니다.

세번째도 여우는 덫에 걸려서 고슴도치에게 꾀를 청했지요.

《인젠 내 꾀는 마지막인데, 만일 내가 곤난할 때엔 난 어떻게 하니? 같은 꾀로 두번은 주인을 속이지 못할 텐데》.

《고슴도치야, 걱정말어. 그 땐 내가 꾀를 대여 주지》.

《난 네 꾀를 잘 알아, 모두 덫으로 데리고 가는 꾀지, 그러나 할 수 없구나, 이번에도 너를 구해 주마. 주인이 오거든 또 한번 죽은체 하렴. 이번에는 너를 곧장 집으로 가져가서 너를 문 앞에 놓고 주인은 식칼을 가지러 갈거야 그러면 알지 멍해서는 안돼!》.

고슴도치의 이야기가 그치자 주인이 다가 왔지요, 여우는 죽은체 하였지만 주인은 그를 믿지 않았지요. 그는 여우를 메고 마을로 갔지요. 집까지 오자 여우를 문 앞에 놓고 식칼을 가지러 집안으로 들어가며 마누라를 불렀지요.

《마누라. 나와보게. 내가 어떤 목도리를 가져 왔는지 좀 보게!》.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여우는 곧 뜰을 지나서 숲으로 달아나 버렸지요.

마누라가 나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마누라는 주인에게 소리소리 질렀지요.

《왜 당신은 나를 속이우? 아무 목도리도 없는데!》.

《무슨 허튼 소리야?》.

주인은 마누라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우에게 세번씩이나 속혔다는 것을 깨닫자 이번에는 더욱 골이 나서 여우를 단단히 혼내우고야 말리라고 마음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곧 포도원에 나가서 깊은 함정을 파놓았지요. 다시 한번 포도 훔치러 왔다가는 함정에 빠져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자는거지요.

그러나 여우도 세번씩이나 덫에 걸린 다음에는 조심스러워졌답니다. 여우가 고슴도치를 데

리고 또다시 포도원에 왔을 때, 이번에는 고슴도치를 앞세웠지요. 그리하여 고슴도치가 그만 함정에 빠졌답니다. 때 마침 주인이 또 길'가에 나타났지요. 가엾은 고슴도치가 함정에서 이리저리 빠져 나가려고 애써 보았으나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청하기 시작하였지요.

《여우야, 이젠 네 차례야, 날 불행에서 건져 주렴. 네 꾀를 좀 말해 주렴》.

《고슴도치야. 말하지 않을테야. 네가 너를 구해 내렴》 하고 여우는 대답했습니다.

《난 꾀를 겨우 세개 밖에 모르는데 이 꾀를 모두 너를 위해 쓰지 않았니. 그런데 넌 하나도 내게 꾀를 주지 않겠니?》.

《날 구해 주다니, 참 너는 어리석구나. 이제 그 값을 받으렴》 하고 여우는 비웃었지요.

고슴도치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말했지요.

《난 인젠 마지막이야. 그러니 죽기 전에 너하고 작별(헤여지는것)이나 하자꾸나. 얘 여우야, 가까이 와 주렴. 한번 입이나 맞추게》.

여우는 고슴도치에게 얼굴을 내 밀었지요. 그러자 고슴도치는 잽하고 여우의 귀를 물었답니다. 어찌도 꽉 물었는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지요. 주인은 점점 가까이 다가 오지요.

여우는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슴도치는 귀를 꽉 문채 여우의 등 우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숲에 다달았을 때 고슴도치가 말했지요.

《여보게 여우, 벗은 고난 속에서 아는 법이야. 이제부터 너와 나는 영원히 동무가 아니야. 너 같은 것과는 벗을 삼지 않을테야》 고슴도치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로 가 버렸답니다.

이 후부터는 숲 속에서 고슴도치와 여우가 만나기만 해도 각각 다른 길로 뿔뿔이 달아나 버린답니다.

(리 원주 역)

유희

„소나무"와 „토끼들

이 놀음은 인민 학교 1,2,3 학년 학생들에게 알맞습니다. 놀음을 할 동무들은 30명쯤이면 됩니다. 놀음을 할 동무들은 6—10명씩 여러 패를 짜서 원을 지어섭니다. 여러 패로 나뉘여진 패마다 그 안에 한 동무가 들어가 서면 나머지 동무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그를 둘러쌉니다. (그림1)

원 복판에 서 있는 동무가 《소나무》 이며 《소나무》 를 둘러싼 동무들은 《토끼》 들입니다. 이외에 《사냥'군》 이 있는데 그는 놀음을 지도합니다.

《소나무》 의 모양을 만든 동무들은 두손을 맞잡아 머리 우에 높이 추겨들며, 《토끼》 들은 자기 손들을 량쪽 귀에 대여 귀가 긴 토끼의 시늉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에 지도자 (사냥'군)가 큰 소리로 《사냥'군이 없다》고 웨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토끼》들은 각각 자기의 《소나무》를 둘러싸고 손을 잡고 기뻐 날뛰며 돌아 갑니다. 얼마 동안 지나서 지도자는 다시 큰 소리로 《사냥'군이 온다!》고 고함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토끼》들은 인차 그자리에 앉으면서 토끼 모양을 하며 자기의 몸을 감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냥'군》은 《산림》 ("소나무„ 들이 여럿 있는 것을 가리킴)을 돌아다니면서 잘 숨지 못했거나 미처 숨지 못하거나) 앉아서 움직이거나 또는 웃음소리를 내는 동무들을 살피여 그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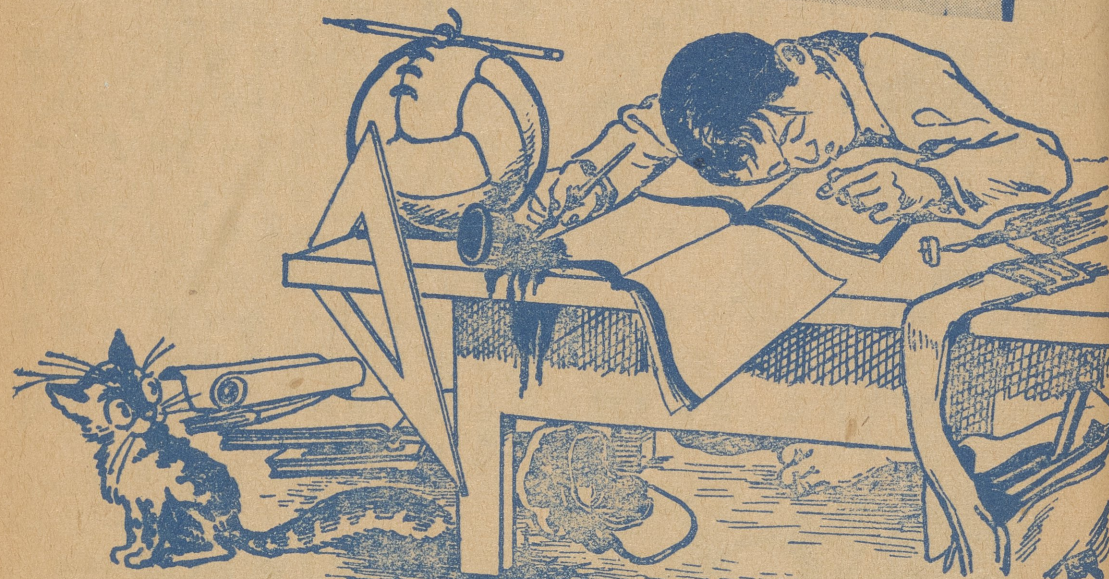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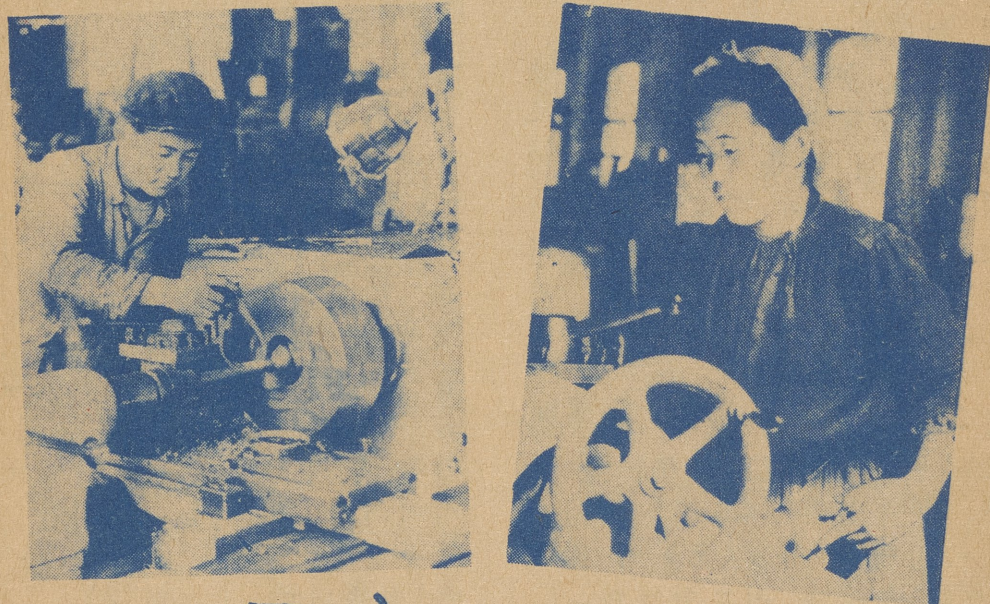
《사냥'군》에게 붙잡힌 동무들은 놀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도자는 또다시 《사냥'군이 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놀음은 5—6회 거듭합니다.

놀음이 끝나면 모두들 다같이 크게 원을 지어 섭니다. 그래서 《사냥'군》에게 붙잡힌 《토끼》들은 춤이든가 노래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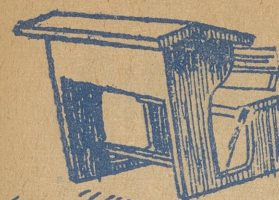
그림 2

여러가지 판

동무는 복습을 잘했는가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님 누나들은 1분 1초를 다투어 가며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또는 초과 완수하고 있다。

그런데 소년단원의 으뜸가는 임무인 학습을 잘하기 위하여 동무는 복습을 잘 하고 있는가?

만일 동무가 몸이 지치도록 늦게까지 뽈차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새 책상

재로 나온 책상은 좋기도 해요.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 보세요.

신철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화는 마구 락서를 하지요.

아이들아!
책상은 락서판이 아니란다.

음전이는 새 책상에 마주앉아서
산수 문제 열심히 풀어 가는데
순근이는 책상 우에 누워서 노
래만 부르네
아이들아!
책상은 침대가 아니란다.

봉수는 생각에 잠겼네
《어떻게 하면 요대루
동생들에게 넘겨 주나》
그러나 찬근이는 말타기에 신이
났네.

아이들아!
책상은 말 잔등이 아니란다.

황해 남도 옹진군 장송 인민 학교

유 영 식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유희 자, 면바로 차 보라!

운동장에 6—8m의 직경으로 원을 그립니다. 그다음 원 안에 축구뽈이나 배구뽈을 놓습니다. 그 옆에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운 동무가 서 있습니다.

지도원의 구령에 의하여 눈 가리운 동무는 뽈로부터 8—10보 앞으로 걸어가서 180도 뒤로 돌아 섭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발자국으로 도로 뽈이 있는 데로 걸어 와서 뽈을 면바로 차야 합니다.

한동무가 끝나면 차례를 바꿔 합니다.

그러나 뽈을 면바로 차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작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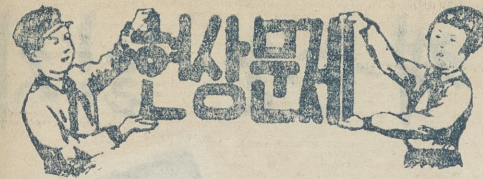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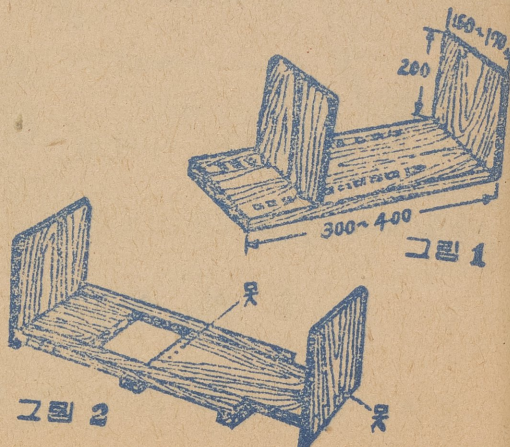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책 꽂이를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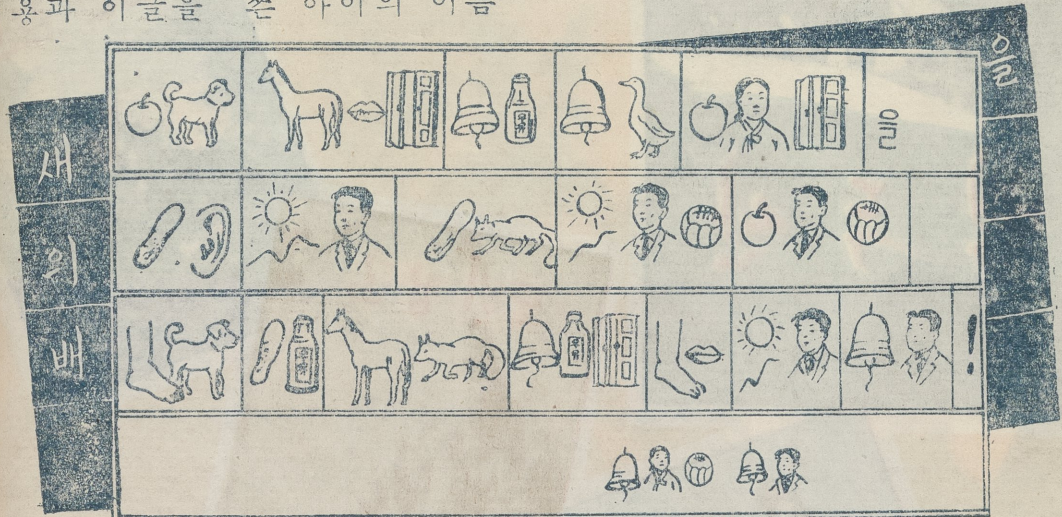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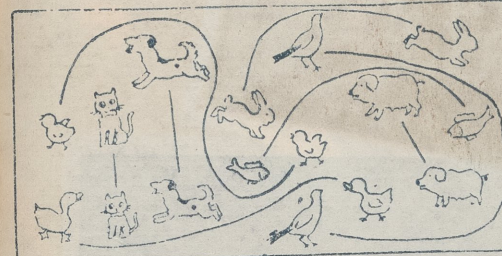
둘 다 편리하게 만들어진 책꽂이입니다.

그림 1의 책꽂이는 두터이 25—30MM 너비 150—170MM 길이 300—400MM 되는 널판자를 밑바닥으로 하고 만듭니다. 밑바닥 널판자 한쪽에는 높이 200MM쯤 되는 널판자를 세우개로서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 세우개 널판자는 자유로 조였다 넓혔다 할 수 있게 밑에 두개의 "발"을 깎아야 합니다. 이 두개의 "발"에 맞게 밑바닥 널판자에 구멍을 그림처럼 뚫으면 됩니다.

그림 2의 책꽂이는 좀 복잡합니다. 이 책 꽂이도 재료는 그림 1의 책꽂이와 비슷합니다. 단지 밑바닥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림1의 책꽂이의 밑바닥 널판자를 길게 세조각으로 짜릅니다. 이때 가운데 조각은 폭이 넓고 량쪽 조각은 같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가운데 조각을 4분하여 한쪽이 "3" 한쪽이 "1"이 되게 짜릅니다. 이 "1"은 좁은 두조각 널판자 짬에 (그림처럼) 넣고 못을 박아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밑바닥이 두개 되는데 이 두개의 밑바닥에 세우개를 그림처럼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밑바닥을 맞춘 다음 네모난 각재를 밑바닥 널판자 안쪽 밑에 못으로 붙이면 됩니다.

이것은 인민 학교 일학년생이 글을 그림으로 그린것입니다. 글 내용과 이글을 쓴 아이의 이름을 알아맞히세요.

한 칸에 글자 한자씩인데 그림으로 두개 혹은 세개를 그렸습니다. 그림은 우리 말 자모와 받침에 따라 한 자모, 한 받침에 한 그림씩 그렸습니다.

제9호 현상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10월 20일 현재 접수 건수 169건중 18건 당선함

평북 향산군 향산인민학교 정순옥
평북 대관군 제 1중학교(인민반) 라영작
평남 신양군 고급중학교(인민반) 리충락
평남 숙천군 제 6중학교(인민반) 박경수
함북 어랑군 어랑인민학교 안병남
함북 유선군 제 4중학교(인민반) 리원옥
함남 함흥 제11인민학교 주재훈
함남 신포군 부창인민학교 한시웅
황북 수안군 성교인민학교 리명근
황남 옹진군 제작인민학교 허광준
평양시 제 4고급중학교 (인민반) 김승남
개성지구 판문군 대룡인민학교 유지영
자강도 고풍군 삼평인민학교 리준화
자강도 우시군 우중인민학교 홍정방
강원도 천내군 제 2인민학교 김윤팔
강원도 이천군 이천인민학교 리순자
량강도 신파군 황철인민학교 한옥자
량강도 부전군 차일 제1인민학교 윤주엽

표지1면 책은 사랑하는벗 김창규 촬영 내용 삽화 컬 림영환 리춘수

1955년 11월 5일 인쇄
1955년 11월 10일 발행
발행소 민주 청년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55 제11호 (총 74호)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200 값 25 원 52,000부발행

이 책들을 읽지
항일서사시
백두산
1955
강감찬 장군
도깨비 장군
리원우 작
양사형의 소년선봉대
동화시집
아동혁명단